



# 삼 주

삼주(백출, 白朮)는 국화과로서 뿌리를 이용한다. 건위(健胃)제, 이뇨(利尿)제, 발한(發汗)제로서의 효능이 탁월하며, 삼주차, 삼주주, 삼주나물 등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안 태 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 탄저병 피해 ●●●

잎에 발생하며, 원형 내지 타원형의 갈색 병반을 형성한다. 병이 진전되면 병반이 서로 융합되어 커지고, 잎이 말라 죽는다. 전염원의 특성상 빗물에 용해되어 물과 함께 이동되어 토양표면에 존재하다가 빗방울 등에 의해 지상부로 전염이 되므로 장마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병이 심하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적용약제가 없어 약제 등록을 추진 중이며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 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 세균성검은무늬병(가칭) 피해 ●●●

삼주에 발생하는 탄저병으로 오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잎끝의 수공, 기공이나 상처부위에 침입하여 엽맥을 따라 다각형의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병반을 형성하고 점차 줄기부분으로 진전되며 심하면 뿌리가 썩게 된다. 병원균이 삼주의 화퇴(꽃봉오리) 형성기에 종자에 침입하여 감염되면 종자를 썩고 무르게 하여 발아율이 저하되고 감염된 종자는 다음해 생육기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세균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병엽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즉시 제거시켜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 우영수염진딧물 피해 ●●●



삼주, 홍화, 사철쭉 등의 약용작물을 기주로 하는 우영수염진딧물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10세대 이상 발생하는데 삼주에 발생하는 경우 잎과 줄기가 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여 흡즙하므로 식물체 생육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크다. 봄철에 처음 발생시에는 주로 줄기에 붙어 흡즙하다가 식물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줄기가 퇴색하면 잎 뒷면에 붙어 가해한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적용약제가 없어 약제 등록을 추진 중이며 또한 칠점박이무당벌레와 같은 무당벌레류가 우영수염진딧물에 대한 포식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어 노지재배를 고려한 천적으로의 이용 가치를 평가 중이다.

### 파밤나방 애벌레 피해 ●●●

지상부 잎을 섭식하는 파밤나방 애벌레는 식물체의 전 생육기에 걸쳐 발생하나 생육초기 발생시 그 피해가 막심하다. 주로 낮에 지제부(땅결면) 및 표토부위에 숨어 있다가 서늘해지는 저녁이나 새벽에 지상부로 나와 식물체를 섭식하므로 발견이 쉽지 않다. 하지만 섭식한 부위의 배설물로 그 존재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등록된 적용약제는 없으며 삼주 생육 초기 이른 아침에 포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발견 시 포살하도록 한다. ㉞

